

“2026년 곡성군민이 더 큰 변화 체감하는 해로...”

조상래 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전남 곡성군은 조상래 곡성군수가 지난 1일 '제276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라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내년도 군정을 ▲ 머물고 싶은 활력 있는 곡성 조성 ▲ 농업인이 대우 받는 부자농촌 ▲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 전 세대 맞춤형 복지 ▲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등 5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전 국민 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으로 교통복지를 완성하고, 생활 SOC 확충과 어르신 버스 도우미 확대 운영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 청년하우징타운·전남형 만원주택·청년 농촌보급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심정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 확대 등 생활경제 중심 정책도 지속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블루베리·멜론 등 특화작목 육성을 강화하고 임면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곡성물 활성화·해외수출 확대 등 농가 소득 향상도 추진한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1단계 완공, 정원 클러스터 구축,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관광,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36호 파크골프장 착공 등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북부 분야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마을주치의·경로당 지원 강화 등 전 세대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유난히 좋은 날'과 '바로폰' 운영을 확대해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마을 기록관 '온담' 구축, 모바일 곡성 소식지 제작 등 군민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재해거점센터 설치 등 군민들의 안전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한편, 곡성군의 2026년도 예산안은 4천 680억 원으로 올해보다 69억 원 증가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조상래군수가 1일 제276회곡성군의회정례회에 참석,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내고장, 보성탐방대 현장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이 태백산맥문학관을 방문,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성군, 수능 마친 수험생에 힐링의 시간 선사

관내 고3 학생 200명 대상 '내 고장, 보성 탐방대 현장 투어'

보성군은 지난 11월 28일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내 고장, 보성 탐방대 현장 투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고향 보성의 문화·자연·역사 자원을 직접 경험하며 3보향(의향·예향·다향)을 체득하도록 기획된 청소년 지역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투어 참가 학생들은 ▲보성열선루, ▲보성차밭, ▲꽃재, ▲태백산맥문학관 등 보성의 대표 문화·관광 거점을 탐방하며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보성이 지닌 역사·예술적 흔적과 차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들었다.

특히, 보성군수와 학생 간 대화 시간이

마련돼, 보성의 미래 방향·사회구조·일자리·정주 여건 등 현실적 질문이 오가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이 형성됐다.

학생들은 열선루 등 보성 탐방에 관한 질문과 신보성역, 미세먼지 차단숲, 기후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 등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탐방을 넘어 책임 있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자산을 몸으로 체험하고 보성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고향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키워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경상보조금)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공매 처분율 등 5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광양시,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우수'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 쾌거...재정 인센티브 확보도

북지 연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25년 이월체납액 42억 원을 징수하고 공매처분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전체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징수율은 전년 대비 6.7% 상승해 시(市) 단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회복실성, 지방세수 감소, 체납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이번 선정으로 광양

시는 3년 연속 기관 표창이라는 성과를 이어나가게 됐다.

한편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남세 의식과 직원들의 지속적인 현장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징수행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세정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영광군, 소상공인 경제부담 완화 위해 12일까지 신청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2025. 1. 1.~11. 16.까지 영광사랑카드

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2024년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금년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2024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5452, 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주의 당부

수도권 및 특·광역시서 내년 3월까지 단속...1일 10만 원 과태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로 전국 저공해 미조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제한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12.~2026.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연접

해 있는 화순군민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훈증·생업증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등은 한시적으로 단속 제외된다.

한편 노상속 환경과장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전국 특·광역시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적발되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 동안 단속 지역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담양군, 12월 정례회 갖고 연말 군정 점검

내년 핵심정책 이행 준비도

담양군이 1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공직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정례회를 열고 연말 군정 점검과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조회에서는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친절 우수 읍·면 표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표창에 이어 올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공공비축미 포대매매, 농업인 한마당 대회, 김장봉사 대축제, 제34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등 11월 군정 현안과 행사에 적극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내년도 재정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라

고 밝혔다.

정 군수는 12월을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5·2026년 군정 핵심정책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로 강조하며 핵심사업, 공약·지시사항,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메타랜드에서 열리는 '제7회 산타축제'와 관련해 "광주·전남 대표 크리스마스 축제로 1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과 교통대책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군수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전기·가스 점검을 강화해 군민 안전 확보에 집중해 달라"며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간 해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